

전남도 산하기관 탄소중립 실천 의지 약하다

16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평가'... 목표 미달·실천 운동 소극적 에너지기관 설립 취지 무색... 전남여성가족재단 등 7곳 목표 달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광일(민주·여수 1) 도의원은 제 383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1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남도 출연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도 달성하지 못하는가 하면,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운동에도 소극적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7개 출연기관들과 '탄소중립 실천 협약'을 체결한 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해 왔다.

평가는 출연기관들이 건물과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량에 견줘 36%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량 평가와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활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점검하는 정성 평가를 종합해 달성 여부를 판단했다.

평가 대상인 전남도 출연기관은 전남연구원,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강진·순천의료원, 청소년미래재단 등 16곳이다.

테크노파크, 강진·순천의료원과 청소년미래재단의 경우 정량평가 뿐 아니라 1회용품 없는 회의 등 기관 내 탄소중립실천과 탄소중립·기후 위기 관련 교육 이수, 실내 적정온도 유지, 환경정화활동, 승강기 특별 운행 제한, 컴퓨터 등 대기전력 차단 등 생활 속 이행 노력 등을 점검한 정성 평가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의원 지적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은 정량 평가를 제외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기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산업진흥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경우 한

경·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환경산업진흥원)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기관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남연구원, 전남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7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다.

한편, 전남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33)'을 수립한 데 따라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에서 97개 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힘내요! 올림픽 선수단

김영록 지사, 선전 기원 서한

전남도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소속·출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격려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소속·출신 선수 9명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전남에서는 근대5종 서창원(국군체육부대),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펜싱 최세민(전남도청), 복싱 임예지(화순군청), 육상 김장우(국군체육부대) 선수가 올림픽에 나선다.

전남 출신 선수로는 배드민턴 안세영(나주출신·삼성생명), 사격 이보나(신안출신·부산시청), 수영 김민섭(여수출신·독도스포츠단)도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총력'

'집적화지구' 지원·임차농 보호 등 반영 집중

전남도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투자사업 유치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림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의 경우 자경농에 한해 농업지역 밖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격 확대를 통한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ha이하 소규모인데다,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를 위한 대단지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농업진흥지역은 80.9%에 달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와 원 내용,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집적화지구 인지를 발굴·지정 신청하면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집적화지구는 첨단산업 유치, 지역 미래산업 특구 활성화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집적화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인 외 법인 등도 23년 이상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작자에게 공익직불금 지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신설, 계통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적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등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을 마련, 22개 시·군, 대학, 관련 협회·기관 및 국회의원 등의 자문을 거친 상태로 7월경 특별법안을 마무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22일 광주은행에서 배회감지기 1200개를 기탁받아 지역 치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 제공>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 걱정 마세요

도, 광주은행 후원으로 배회감지기 1200개 지급키로

밖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다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 1200개가 보급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1200개(3억 5000만원 상당)를 기탁, 전남지역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300개(880만원 상당)를 기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배회감지기 917개를 기탁받았다.

배회감지기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탑재한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다.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을 벗어났면 보호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위기 상황 시 경찰 등에 SOS 긴급 호출을 할 수도 있다.

전남 지역 치매 어르신은 5만 6000명. 전남도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 어르신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977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재해취약시기 실태 점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8일부터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붕괴 등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연재난 대응 실태점검에 나섰다. <사진> 이번 점검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재난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참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상황을 살피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수방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토사 유출 ▲절토면 붕괴·매몰 ▲침사지 및 배수시설 설치 ▲시설물·자재 결속상태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풍수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현지 조치가 어렵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시설은 응급 조치 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응급



복구를 위한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재난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재난관리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목포·광양 등 전남 7곳 아이돌봄서비스 '우수'

목포·광양·고흥·완도·화순·해남·장성 등 전남 7개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전국 227개소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이들 7개 지역 서비스가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전국 227개소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시, 도농, 농촌지역 3개 그룹별로 구분해 평가한 뒤 A·B·C등급을 부여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67개소는 우수등급인 A가 부여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